

라나회장 인텔

[유튜브 라나방송tv]

2021. 8. 29. ~ 2021. 9. 27.

라나회장 인텔(유튜브 라나방송tv)

- ※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른 역정보/오정보가 있음을 인지할 것.
- ※ “버드나무님”의 글을 문서로 다시 작성하였으며 출처링크 및 사진 등은 삭제함.

2021. 8. 29. 첫 번째.

미국의원들 67명 체포, 사이버 심포지움과 마이크 린텔을 방해했던 방송 및 빅텍 관계의 범죄자 대량체포, 현재 화이트햇 수장은 트통과 국방부장관 대행 크리스밀러, 정부와 군산복합체간의 회전문인사로 카발들의 인력관리, 대선 재검표 발표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카발들의 계속되는 방해작전의 종류, 식량 연료 생활용품등의 부족과 반도체 이용하는 자동차회사 일부 공장 중단, 시니어부시의 아버지인 프레스캇 부시가 나찌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나찌 어젠다를 미국안에서 계속 수행, CIA와 NASA의 수십년간의 기후조작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몇 가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미국의회(Congress)가 8월 6일부터 휴가를 갖는데, 휴가 간 사이에 67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2. 사이버심포지움(Cybersymposium)을 베개회사 CEO인 마이크 린텔이 했었는데, 그 사람의 소식을 막고 블락(block, 막는)한 회사나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죄를 짓게 일부러 두고 보는 겁니다. 그 후 그 사람들을 잡는 겁니다. 지금 매스 어레스트(mass arrest, 대량체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지난 8월 11일에 EBS, EAS도 했었죠.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회사들은 미리 (군으로부터)통보를 받았죠. 그런데 예상대로 그들이 88%가 막았다고 했는데, 그때 방해한 자들, 즉 방송이나 빅텍의 범죄자들을 리노에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4. 현재 화이트햇의 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터곤(Pentagon, 국방부)쪽의 수장은 크리스 밀러입니다. 두 사람이 전쟁게임(War Game)을 계획을 했고, 그 중에 아프간 사태가 워게임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카발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죠. 특별히 그 사건이 더 충격을 세계사람들에게 주었죠. 눈감고 살았어도, 이런 뉴스도 잠자는 사람들에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화이트햇이 카발들의 완전한 실체를 폭로하고 있고, 먹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MSM이 부통령한다는 카말라가(원래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사람) 아프간에서의 역할을 맡아서 잘 감당하고 있다고, 뜬금없는 소리를 MSM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말라는 지금 베트남을 방문 중인데 유유자적 놀아요, 휴가 중입니다.

5. 바이든의 국방부장관 오스틴이 해병대 최고의 4성 장군인 데이빗 버거한테 부탁을 한거예요. 여러 가지 미국의 아프간 사태를 도와달라 하니까, 데이빗 버거가 우습게 보면서 “실권도 없는 네가 뭘 나한테 부탁을 하나?” 라고 하면서 전화로 면박을 주면서 완전히 창피를 주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간에서 마약장사 하던 애들 데리고 나오려다가 군용기 좀 빌려달라는 거 못쓰게 했다고 했죠. 버거는 해병대 4성 장군이고 밀리가 하던 합참의장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 흑인 국방장관 오스틴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 군산복합체가 많이 있죠. 놀쓰롭(Northrop), 락히드 마틴(Lockheed Martin)등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번역자: 군산복합체 회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세계에 전쟁이 계속 필요한 이유가 될 것도 같습니다. 번역 없이도 그냥 쪽 보시면서 갯수만 세 보셔도 됩니다. 저는 안세어봤습니다^^*)

우리가 회전문(revolving door, 리발빙 도어)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가 대통령을 그만두면 다 우르르 빅텍으로 몰려 갑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가서 일하다가 이번에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니까 다시 또 우르르 몰려와서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걸 리발빙 도어라고 해요. 회전문인사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주요 정부 요직을 맡았던 사람은 군산복합체 락히드 마틴으로 몰려가서 카발들이 먹고 사는걸 해결해 주는거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또 우르르 몰려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현재 국방장관한다는 오스틴도 록히드 마틴에서 일했고, DEW(Direct Energy Weapon, 지향성 에너지무기)개발에 깊이 관여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두각시고 아무런 실권이 없죠. 현재 실권 있는 사람은 펜터곤의 크리스 밀러입니다.

7. 제가 몇 달전에 말씀드렸어요.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국방부를 방문했죠. 워싱턴 디씨에서 포토맥 다리를 건너면 바로 펜터곤 시티라고 바로 강 건너자마자 있는데 거기에서 크리스 밀러가 거기에 모든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과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방문했어요. 현관에서 발 한 번 못 붙이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군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재미난 얘기로 그냥 말씀을 드리구요.

8. 카발들이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디스트랙션(distracton, 주의분산)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것이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적당한 단어가 아닌데요, 주의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라라고 사전에 나옵니다만.., 그냥 단어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합참의장(Joint of Staff)에는 여러명이 있습니다. 거기 트형님이 임명했던 장성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하나 쫓겨난 사람이 없습니다.

디스트랙션을 하기 위해서 카발들이 여러 일을 터뜨리고 있어요. 국회의사당 옆에 폭발물이 장재된 트럭이 있고, 범죄자를 잡고 보니 완전 꼭두각시로 얼굴이 좀비 같이 뭐라고 물어도 대답하고 얼굴이 병찌서(blank look, 블랭크 룩/멍한 표정) 좀비 같이 그런 얼굴이구요. 의회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잡아보니까 트럼프지지자처럼 가장을 시켜서 카발들이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폴스 플래그(false flag, 위장술책)라고 하는데 재검표 발표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홀트러뜨리려고 합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드리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위대하게) 모자를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쓰고 다니고, 미국 국기가 있는 티셔츠를 입거나 스카프를 하면서 다니는 게 특징인데, 마치 트형님 지지자처럼 마가 모자를 씌우고, 스카프를 하게 해서 이 사람이 트럼프 지지자다 하는 겁니다. 이거 다 그들이 하는 가짜 조작입니다.

9. 최근에 식량, 연료, 물품 등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용품의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그중의 하나가 세마이 컨덕터 칩(semi conductor chip, 반도체칩)이 공급부족으로 여러 칩이 들어가는 제품이 많이 있죠. 그중에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임시로 공장을 가동중단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10. 기후조작을 하고 있는 주범이 CIA, NASA라고 했습니다. 부시 시니어의 아버지인 프레스캇 부시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찌를 전부 미국으로 데려와서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이 하려고 했던 어젠다는 계속 미국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왜 오랫동안 이런 일이 착착 진행이 되고,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줄 알았더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그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의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끌고 온거예요. 성공했죠. 카발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페이퍼클립작전: 미국에 나찌과학자들을 데려왔던 비밀정보프로그램(프레스캇 부시 주도)

그래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CIA와 NASA가 열심히 하는 일이 기후조작이고, 미국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허리케인이 계속 있고, 이름도 다 붙였는데 (조지 허리케인 등). 과거엔 전 이게 자연현상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허리케인(Hurricane), 트로피칼 스톰(tropical storm, 열대 폭풍)등을 계속 그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도 입힙니다. 자연재해가 아닌거죠. 자연재해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것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정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나였습니다.

2021. 8. 29.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좀 복잡한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라나회장님도 그에 대한 인텔이 정확하신건지 이후 상황을 봐야할 듯 합니다.

호주의 전체주의의 심화, 화이자 식약청 승인 기사는 의도적인 가짜뉴스, 트통의 백신구성성분에 대한 암호코드, 싱가포르에서 세계최초 코비드사망환자 시신부검결과는 박테리아가 원인, 미국 2개주 메디베드는 준비완결 및 트통 복귀시 바로 실행, 카발들의 점조직구조로 윗선이 사라진 것을 파악하지 못해 하부선들이 우왕좌왕, 얼라이언스는 현재 32개국 구성, 가짜 3차대전과 가짜 핵공포 이벤트는 계엄령 발동위한 전제조건, 정전과 대통령의 메시지와 EBS,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제 방송 썸네일 보면 최신소식하고 제너럴한 제목을 붙이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애매하게 붙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 것입니다.

1. 지난번 아프간 사태 말씀드렸었는데, MSM에서 나오는 동영상은 과거 2018년도에 있었던 동영상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참혹한 상황을 ISIS(아이시스)에서 하던 걸 짜깁기해서 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탈레반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흑백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라나회장님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 듯 합니다. 좋은 사람까진 아니어도 탈레반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닌 험블(소박)한 사람들이라고 하였고, 학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잡한 군사비밀작전에 어떻게 이거다, 저거다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핵심적인 줄기만 잡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 사소한 것들은 많은 것이 어떻게 다 통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2. 현재 호주에서 일어나는 소식은 MSM에서 발표 안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전체주의(tyranny, 티러니) 국가의 양상을 띠고 국민들을 옥죄는데 상상불가입니다. 일례로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써라. 서로 마주서서 얘기도 하지마라.

체육관에 수 천명의 아이들을 몰아넣고 강제로 백신주사를 맞춘다든지 그 후로 아이들이 피해가 많이 피해가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호주는 영국의 죄인들을 미지의 발견한 섬으로 보내서 이루어진 나라가 호주 아닙니까.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호주를 보면 전 인류가 깨어나고 정신 차릴 정도로 샤킹(shocking, 충격적)한 얘기라고 말씀드리구요.

3. 화이자가 미국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무접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보통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3-4년, 못해도 6-7년이 걸리는 게 식약청 승인입니다. 그 안에는 clinical trial, 전문가 패널들이 일일이 판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하는 일종의 긴 승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거치고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8월 23일 식약청에서 했다는 것은 EUA(Emergency Use Authority, 긴급사용 승인)라고 합니다. EUA를 다시 사용해서 생산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MSM이 완전히 뒤집어서 FDA가 화이자의 백신을 승인했다고 둔갑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놀랍지도 않죠.

4. 술잎차는 백신 맞으신 분이나 안맞으신 분이나 다 드시기 바랍니다. 수라민이라는 성분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막고, 해독을 한다고 합니다.

5. 트통이 맞았다는 백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리제너런, 이버맥틴 등을 먹었다는 것을 백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코드 토크(code talk)라고 합니다. 암호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속사정을 들어보면 알겠지요.

재빠르게 백신을 소개한 이유는 수년간의 통제를 막기 위해서 재빠르게 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6. 바이든의 부인이 질 바인든인데 본부인을 몰아내고 불륜으로 부부가 된 사이 아닙니까. 본부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세계최초로 시신부검(autopsy, 어탐시)을 했는데, 발견된 것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8. 카발이 마지막으로 백신을 어젠다로 설정하고 피터지게 밀어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9. 알라바마주에서 트통이 랠리를 했는데 수용인원이 45,0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4만 5천명을 다 채우고, 들어가지 못해도 티켓을 사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25만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통에 대한 열기는 대단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0. 메디베드가 플로리다주, 텍사스주에서 먼저 실행이 되고, 50개주에서 힐링 센타 등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죠. 트통이 돌아오면 바로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1. 아프간에서 미국군대가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카불로 갔다고 합니다. 옛날의 동영상을 사용해서 참혹한 것을 보셨는데, 과거 ISIS(아이시스)가 쓰던 동영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카발들이 그동안 탑다운(top-down)으로 지시를 했는데, 이들은 사실 점조직으로 이루어져서 서로는 모르는거죠.

컴파트먼트라이제이션(compartmentalization, 구획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탓에 밑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윗선이 어떤지, 죽었는지, 체포되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윗대가리들을 체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없다, 방향이 미비하다고 얘기하네요. 그들이 우왕 좌왕 하니까,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굉장히 서투르게 나타나고 있고, 카발들은 매우 혼동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카발들을 블랙햇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들의 특징은 세계 모든 인류를 통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통제를 하려니까 갖은 술수를 쓰고, MSM을 장악해서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굳가이 화이트햇은 일단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블랙햇과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12. 아프간 사태는... 아리조나주, 조지아주 등의 부정감사 재검표 발표에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화이트햇이 하고 있는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거감사에 모든 관심을...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그를 지지하던 일반 국민들이 바이든에게 염증을 느끼고 돌아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것이 화이트햇이 노리는 목적이구요.

그래서 아마 카발들은 재검표 발표를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하고 있고, 백신과 빅텍이 협조하면서 전세계 경제 붕괴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데, 지금 어두운 시간에 많은 체포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13. 3일정도 블랙아웃(정전)이 있을거라고 했죠. 그 이후 계엄령이 있을 것이구요. Military is the only solution.(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2-3주 견딜 비상식량과 물을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이므로 한국도 해당이 됩니다.

화이트햇과 블랙햇이 치열하게 대대적인 메이저 무브라고 했는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하구요. 32개 국가가 이번 기회에 다 청소가 되겠죠.

각 국가의 지도자급이 다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여러 음모, 그들의 부패했던 자들은 모두 체포 될거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쟁(conflict), 사건들, 기후조작(climate change)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밀리터리가 나서기 위해.... 여기서 밀리터리라 함은 미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얼라이언스(alliance, 연대 / 동맹)이라고 했어요.

한국도 주한미군이 가있는데 그들이라고 조용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국에 대한 인텔은 없는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밀리터리가 나서기 위한 하나의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 실제로 겪고 있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위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뉴스가 막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가짜 핵공격

뉴스 등은 미리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얼라이언스가 전세계의 밀리터리를 동원하는 싸인이 “핵무기가 터졌대.”, “사이버공격이 일어났대.” 등이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짜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 가짜 핵공격이 앞으로 있을 것이구요. 프레지덴셜 메시지(presidential message, 대통령 메시지)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거고, EBS는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프리 에너지로 넘어가기 전에 정전이 있을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2-3일 정도의 정전이라고 합니다.

정전 동안에 나머지를 체포가 완성이 될거라고 합니다. EBS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준비한 시스템으로 보되, 그때는 MSM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 후에 EBS만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15. 지금은 싸움이 마지막 때(last phase, 라스트 페이즈)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기도하는 게 낫겠지하는 태도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하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나였습니다.

2021. 8. 30.

라나회장님의 당부말씀과 젠 사키 대변인의 플랜데믹 발언, 지금 현재 세계를 무대로 한 대각성 작전중임을 암시하는 트통의 발언, 지난 5년간 사망자 통계와 코로나의 연관성 없음, 코로나와 백신은 전 인류가 깨어나는 계기, 유럽의 다양한 평화로운 저항방법, 아프가니스탄의 얼라이언스 작전에 대한 신뢰 부탁, 미국 의료계 종사자 백신접종률 48%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을 치루는 중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하인드 신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롱(strong, 강한)한 분들이 아니시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이 순간을 잘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같은 지역에 사는 깨어난 사람들끼리 네트워킹(networking)을 하시고, 커뮤니티(communitiy)를 좀 만들고 그런 사람들끼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1주일에 한 번 점심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결론은 서로 격려하는 서포트 시스템(support system)을 구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못 만나면 앱을 통한 화상회의로 온라인으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크레이지니스(craziness, 광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last of love, 사랑의 지속) 스트롱(strong, 강한)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1. 어제 소식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변인 젠 사키(Jen Psaki)라고 있는데, (제가 그 여자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매일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여자가 팬데믹(Pandemic, 유행병)라는 말 대신에 플랜데믹(Plandemic, 계획된 유행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바이든 대변인인데요. 실수로 그러는거냐, 아니면 화이트햇이 “너 이렇게 말해!” 하고 시켰는지 제가 지금 알 길이 없는데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 트형님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고, 보여줘야 된다.(You cannot tell the people. You should show them.)” 그랬어요. 보여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런 나날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이 없이는 인류가 절대 깨어나지 못한다.” 고 밀리터리가 말하는데,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몸이 안아팠는데, 내 친구가 아프다 그러면 친구가 아픈 것을 몸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팠던 사람은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아주 나의 일처럼 깨달아지는 것. 이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사실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쉽게 트형님이 돌아와서 짜잔~, 착착착~ 진행되서 아무 고통도 없이 새로운 좋은 세상으로 넘어간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거니와 넘어가서도 또 금방 부패해버리고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서 다 갖은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제가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요. 아이가 불 가까이 가서 불에 데어야 다시 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앗~ 뜨거! 지구무대에서 실제로 생생한 그레이트 리셋을 체험하며 카발의 악행과 부패가 얼마나 나쁜지 깨닫는다.

또 트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 2016년 ~ 2020년의 사망자의 숫자(1년에 얼마나 사망자가 있었나)의 통계를 보니까 5년 동안 똑같아요. 코로나가 있거나 말거나... 코로나로 죽었다고 발표된 사망자 가운데 감기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매년 감기나 폐렴으로 한 20,000명씩 죽는다고 하는데 그 숫자는 거의 없어요. 제로예요. 그리고 다 코로나로 죽었다고 나와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카발들이 세계인류의 인구를 감축하려는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와 백신으로 전 인류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카발들은 지금 지 발등을 짚은 겁니다.

4. 또 어제 오늘 일인 것 같은데 뉴욕에서 워커(worker, 노동자)들이 길에 뛰어나와서 백신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겠죠. 지금 유럽 각국에서 시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건 아시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부족한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스티물러스(stimulus, 자극, 격려)로 연방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아예 그냥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일 안하고 그거 받는 게 차라리 최저임금 받는 것보다 낫다해서 그렇게 받는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빵집을 갔는데 그 빵집이 8시까지 하던 집인데, 낮에 2시에 문을 닫는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구요. 주요 노동인력이 부족한 원인중의 또 하나가 백신 후유증으로 아프거나 죽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 뉴스에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프랑스(불란서)에서는 백신 맞은 사람들만 오게 하는 식당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 그래? 그럼 너네 식당 안가면 돼.”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테이블보와 음식을 싸가지고 나와서 블랭킷(blanket, 얇은 이불) 같은 것을 길바닥에 깔고 길에서 피크닉(picnic, 소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명이 아니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와인 앤 다인(wine and dine, 맛있는 술과 음식을 즐기다)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들이죠. 그런 식당들을 보이콧(boycott, 불매운동)한거죠. 바로 이런 방법이 잘 싸우는 방법이고 평화적이면서도 레스토랑 오너(restaruant owner, 음식점주인)들한테 “야, 정신차려. 너네가 우릴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나?? 하면서 본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아프간 현지에 계신 분이 소식을 보내왔는데 이 얼라이언스(alliance, 연대/동맹)의 계획을 트러스트(trust, 신뢰)해라, 믿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화이트햇들이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댕글에서는 선교사가 기도를 부탁하는 댕글도 봤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모릅니다. “이것이 화이트햇 작전이니까 줄기를 잘 잡고 그 외에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또 통계가 나와있는데 미국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스태프들이 약 48%만 백신을 맞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 소식 전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

2021. 9. 8.

각 나라 정치인은 매수된 자들, 이스라엘국민 다수 백신맞은 것은 제 3세계 국민들에게 맞추기위한 쇼, 캐나다 트뤼도는 쿠바 카스트로의 혼외자식이고 캐나다를 망가뜨린 자, 돈세탁 위해 케이먼 아일랜드에 숨겨놓은 10억 달러 압수당한 프랑스의 마크롱, 호주 주요방송시간대에 사탄의식이 노출, 현대사중 가장 위험한 시기가 현재라는 미국방부의 시각, 카발에 의해 장악됐던 미국 행정부의 해계모니를 뺏을 때, 군부가 생각하는 핵심은

<1> G7 국가의 현재 정부 제거

<2>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장악한 빅 파마(세계대형제약회사)들 제거

제임스 본드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인 경우 많아, 화이트 드래곤 써사이어티, 아시아드래곤 패밀리와 파이프 아이즈 가을에 회의로 현재의 썩은 시스템을 대체할 시스템 마련, 죽기직전의 경험은 잠자는 노예들을 위한 필수과정, 깨어난 자들과 깨어나고 있는 자들은 서포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앞으로 후쿠시마얘기를 시작으로 깜짝 놀랄만한 뒷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시고,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계속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읽고 기가 막히니까요. 저도 카발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았다고해도 저도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하는 겁니다.

1.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의 정치인들이 이미 다 매수가 되었습니다. 99.99%. 더 이상 그들은 국민들한테 등을 돌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얘기는 그들한테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의를 대표하는 자들이 아니더라는 것을 정확하게 눈을 뜨시고 아셔야 합니다.

2. 이스라엘의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죠. 가장 비을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사실은 그들은 식염수(saline, 세일린)를 많이 맞았고, 캐나다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3세계 국가들이 서방국가 잘 사는 나라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네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맞았다고 합니다.

트형님이 처음에 백신을 소개하면서 밀리터리 워프 스피드 작전(Military Warp Speed Operation, 백신의 빠른 개발과 빠른보급을 위한 작전/ 실제로 이 작전을 통해 백신도 보급했지만, 전 50개주에 군인 배치)을 했죠.

그건 내부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방송했었으니까 반복하진 않고, 미국에서도 초기에 많이 맞은 사람들이 식염수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었 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죠.

3. 캐나다의 트뤼도 수상은 쿠바 카스트로의 혼외자식입니다. 처음엔 루머로 돌았지만 확실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카발(= 카자리안 마피아)이 세운 사람이 트뤼도인데 현재 바이든이 가짜인 걸 이미 알고 있고 그의 보스는 록펠러로 항상 직접 보고를 합니다.

트뤼도는 로스차일드, 록펠러의 하수인이죠. 곧 제거될 거라고 합니다. 죄가 어마어마하죠. 미국에서 오바마가 미국을 망가뜨린 것 만큼 캐나다를 망가뜨린 자가 트뤼도입니다.

또 다른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이 프랑스의 마크롱인데, 그도 곧 사라질거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인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니까요.

케이먼 아일랜드, 카리브해 지역의 작은 섬들 중에 은행들이 있습니다. 불법 자금들을 거기에서 돈세탁을 합니다. 은행에서 한 10억달러를 숨겨놨는데, 마크롱이 숨겨놓은 돈 자체가 압수(seize, 씨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쫓겨날거라고 합니다.

4. 지금 드린 모사드(MOSSAD, 이스라엘의 정보국)의 정보에 따르면.... (정보국 에는 화이트햇도 있고, 블랙햇도 있습니다.).... 호주 정부에서 가공할만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최후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호주에서 사탄을 불러들이는 세리모니(ceremony, 의식)를 호주의 프라임타임(prime time, 시청자가 많이 보는 주요시간)에 TV에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세계인들에게 보여지는 싸인(sign, 표시) 이라고 합니다.

운동경기 때도 하는 세리모니들을 보면 그게 다 사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국민들에게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거의 신경질적으로 더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싸움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베이스드 라이(based lie), 거짓말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죠.

5. (미국)국방부가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현대사 중에서 미국이나 세계전체가 현재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인류사에 이런 때가 없었죠.

나아가서 이런 거짓말을 한 책임이 각 국의 대통령들, 제너럴(장군)들, 스파이들, 미국의회(congress) 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누가? 미국의 국방부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정서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일 때는 경제가 좋고, 잘 살고, 개스값도 너무 낮고 이러다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났고, 아임 쏘우 타이어드(I'm so tired...) 코로나 얘기는 이제 듣기도 싫어, 지겨워...라고 하죠.

이제 미국이 쥐고 있던 헤게모니(hegemony, 주도권)를 뺏을 때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행정부가 카발들이 차지한지 오래 되었죠. 말을 안들으면 JFK처럼 암살을 하고... 카발들이 장악했던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거죠. 미국은 현재 올바른 리더쉽이 필요한 거죠.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도덕적인 리더쉽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6. 제가 과거 방송에서 지금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잘 안되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과거에도 몇 번 드렸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 국가 존망의 문제입니다. 바이든은 머리 나쁜 부패한 중공에서 돈이나 받아먹는 부패한 늑은이다라고 하네요.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미국인의 비호감으로 낙인찍은 여자입니다. 좋다하는 사람이 2%. 그러니 모두 다 싫다는 거죠. 그 여자는 방송에 나오면 아무 핵심 없이

실실 웃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웃는지... 예전에 프라이머리 나왔을 때 완전 가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카발들이라도 좀 심각하게 표정 관리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애는 머리로 나빠, 표정관리도 안되더라구요.

미국의회 의원들은 거의 카발들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이 사실들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게 되었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아예 썩어 문드러졌고, 비온드 리페어(beyond repair, 고칠 수가 없는) 수리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7. 지금은 록펠러, 로스차일드가 만들어 놓은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인데 중공이 돈을 대고 있었어요. 미국이 파산을 했는데 뭘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공을 만든 것도 카발인데 중공이 오히려 돈을 록펠러, 로스차일드에게 돈을 대고 있죠. 중공이 돈을 대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 같은 현재 소위 말하는 미국의 동맹국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약속을 중공한테 해주고 지금 돈을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는 주권 국가인데, 남의 나라에 대해서 지들 끼리 3자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오래 되었죠.

8. 군사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꼭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

<1>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의 정권이, 대부분의 G7국가들의 정부(civilian government, 민간 정부)가 다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가 장악하고 있는 의료산업, 제약회사(Big Pharma, Big Pharmaceutical/빅 파마, 빅 파머쥬더클)들이 속히 다 사라져야 된다. 없애버리는 거죠. 밀리터리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9. 여러분 이런 영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본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영화 중에 온 허 머제스티 씨크릿 서비스(On Her Majesty Secret Service, 엘리자베스 여왕의 비밀경호)가 있는데요. 현재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영화인데요. 거기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엠아이식스(MI6, 영국의 인텔리전스)등을 보면 그런 영화들은 픽션(fiction, 소설/허구)이 아니예요.

넌픽션(nonfiction, 사실이야기/진짜)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난 과거에 인텔리전스로 정보전쟁에서 승리한 예를 영화 각본으로 짜서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있었던 얘기를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생생하죠.

영화에서 본드가 악한과 싸우는데 유전자 변형을 할 수 있는 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전세계를 협박하는 악한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위스에 있는데 본드가 그를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본드가 스위스 산 정상에 실험실(lab)을 파괴하는 것이 나오는데 없는 얘기 아닙니다.

영화처럼 꼭 필요한 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나.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같은 곳의 국경들에 있는 산들이 있어요. 산 밑에 그런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시설들이 지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야 합니다.

10. 또 없어져야 하는 것이 MSM이고, 화이트햇들이 장악해서 진실보도를 하게 해라. “야, 너 제대로 말해!. 거짓말 그만하고.” 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아예 그들을 장악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로 세우겠죠.

하이텍(High Tech)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은 캘리포니아주의 팔로알토란 곳에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가본데 인데요. 팔로알토를 자체를 군인들이 장악해야 되고, CNN, AT&T도 아틀란타에 있어요. 거기다 장악해서 작살을 내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그들이 올 가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화이트 드래곤 씨싸이어티(White Dragon Society, 백룡회), 아시아 드래곤 패밀리(Asian Dragon Family, 아시아 용가문) 등은 아시아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비밀사회(Secret Society, 씨크릿 씨싸이어티)였죠. 이들은 악한 카발들과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번역자 부연설명: 지금 현재 전지구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얼라이언스(alliance, 연대/동맹)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군부, 화이트드래곤 씨싸이어티, 아시아드래곤 패밀리, 그노시스 일루미나티 등으로 내부적으로는 카발 편에 있다가 반성하고 돌아선 세력도 있으며, 글로벌리스트의 입장이었으나 카발들의 인류에 대한 사탄의식과 인신매매 등 심한 수준에 염증을 느껴 카발 전체 말살을 목표로 합류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 벤자민 폴포드 보고서에서 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중 아시아 지역의 화이트 드래곤 써사이어티와 아시아 드래곤 패밀리
중국쪽 비밀사회로, 엄청난 자금을 지구를 변화시키는데 좋은 방향으로 사용
되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으로 쓰는거라 내용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다시 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백룡회, 아시아드래곤 패밀리와 같이 모여서 가을에 회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거냐? 썩어 문드러진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만든 시
스템을 대체(replace, 리플레이스)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고, 지금 아주 바닥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미팅 전에 더 심한 바닥의 현상을 겪게 될 거
라고 합니다. 니어 데쓰 익스피어리언스(Near Death Experience, 죽음에
가까운 경험)를 거쳐야 한다고 했죠. 죽는 거예요. 거의 반쯤 죽는 거예요.

11. 거의 죽는 경험은 왜 해야 되냐? 늘 말씀드렸어요. 잠자던 자들(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 많죠.), 주사 신봉자들은 슬레이브(slave, 노예들)입니다. MSM이
말하면 최고의 뉴스이고, 거기에서 말하는 거 다 받아먹고, 그거 아닌 거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지들이 노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잠자던 자들, 노예들을 깨우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반쯤 죽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했던 얘기입니다.

과거 시스템 자체가 완전 실패를 했기 때문에 현재 대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디컬 마셜 로(Medical Martial Law, 의료계엄령)를 통해서 사람들을 락다운
하고 움짱달짝 못하게 하고, 주사 어떻게 해야된다 어쩐다 하는 이런 일련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카발들이 성공했습니까? 안되잖아요.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탄숭배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카발들이 아주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할테니, 세상의 모든 것을 나한테 줘라 이런
자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줬어요. 그 얘기로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공부들 하시고~

12.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죠. 사탄숭배자들은 교황을 갈아치워서 현재
교황이라는 자는 주사 맞아야 돼 열심히 홍보하는 자인데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죠. 진짜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자로 갈아치운 자들이 이 사탄숭배
하는 카발들인데 그 정도로 이들은 파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지구의 해방을 가져올 때까지는 카발의 최고위층들 로스차일드, 록펠러, 피니션 패밀리 등 13개의 패밀리를 얘기했는데, 그들을 사정없이 공격해서 제거하고 행복을 받아내는 게 인류가 그들에게서 해방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3. MI6가 카발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길... 한 마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들한테 있을 일을 말씀드리면 곧 뭐냐?

미국 안에 있는 딥스테이트(=카발)와 CIA의 붕괴를 보는거다 라고 합니다.

14.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퍼즐조각을 계속 제가 던져드리니까, 퍼즐 조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리저리 맞춰보세요. 이제 거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서포트 시스템(support system, 지지 후원 격려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도 주사로 의견이 갈라졌다! 할수 없죠. 가족이든 친구든 서로 안맞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살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안믿는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입을 벌리고 먹을 걸 넣어줘도 안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15. 오늘 또 한가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아~ 내가 몰랐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놀랍다, 이런 것을 배우면서 깨어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들과 서포트 시스템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래야 우리가 힘들지 않죠.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다수고 우리가 머저리티(majority, 대다수)라고 했죠. 카발들 재네는 몇 천명 안되요.

그런데 몇 천명 안되는 사람들이 78억 인구를 좌지우지하고, 1700년 말이니까 ... 200년 이상을 우리를 지배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금의 암흑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미국에 온지 42년이라 제가 한국말도 서툰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라나였습니다.

2021. 9. 27.

오늘 방송은 트럼프의 바디더블 문제로 블랙햇이나 화이트햇이나 논쟁에 화이트햇 땡땡~, 아시아 비밀사회 백룡회가 바이든 행정부를 컷오프 시키고, 지구향상 프로젝트를 가동하도록 영향력 행사, 호주의 가혹한 코비드 정책과 백신강제는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CCP의 조종, 애리조나주 감사를 시작으로 주별로 이어지는 포렌식, 부정선거 폭로와 함께 선거범죄자 체포로 이어질듯, 유튜브의 계속된 핍박으로 라나방송TV는 럼블(rumble)로 이전, 그리고 유튜브 방송은 럼블로 오기위한 다리로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링크를 누르고 럼블로 오신거죠. 앞으로 럼블에서는 단어를 ~땡땡 안쓸거고, 그동안 유튜브에서 말하지 못했던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인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튜브를 의식해서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 까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유튜브에서 한 5만명 정도 조회수가 있었는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퍼나르셔서 (구독자수가 늘었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분들이 다 알도록 들으시는 분들이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 트럼프가 딥스와 한 편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화이트햇이다!!!

우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전에 “트럼프가 딥스와 한편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댓글에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썄 제가 이것에 대해 또 대답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카발은 도당이란 뜻입니다. 딥스, 카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나 다 같은 말입니다. 헛갈리시는 분들은 이번에 단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수 백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들의 어젠다 (agenda, 의제/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착실히 불법을 저지르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생활을 장악하고 그렇게 착착 잘 진행되어 왔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했던 일들이 그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도 중요하지만, 카발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전 인류가 그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그들이 그동안 했던 갖은 악한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등장으로 더더욱이 2020년 부정선거로 전 인류가 깨어나게 되는 것인데 트럼프가 그들과 한 패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올리는 사람들은 참 답답해요. 그렇지만 제가 또 이렇게 한마디 보태네요. 앞으로 그런 내용을 댓글에 올리시는 것은 상당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자하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동안 수 백가지의 증거를 말하면서 화이트햇이 이기고 있다는 것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가 작년 8월달부터 인터뷰를 하면서 1년이 넘었네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화이트햇이 이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와서 몇 가지 말도 안되는 얘기로 “트럼프가 화이트햇이 아니고, 블랙햇이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되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이 성공 중에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뉴스를 전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 뉴스를 접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열심히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대대통령은 워낙에 다 바디더블이 있었습니다. 씨큐리티(security, 보안) 문제도 있고 대통령이 바디더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블랙햇만 바디더블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그 사람이 딥스와 한편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2. 아시아 비밀사회인 백룡회의 활약

그럼 오늘 방송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아시아에서도 씨크릿 써싸이어티(Secret Society, 비밀사회)가 있었다고 했었죠.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1) 카발, 로스차일드, 록펠러가의 집단들

카발(Cabal)들에 대해서는 제가 늘 카자리안 마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약자로 KM(Kazarian Mafia, 카자리안 마피아 줄임말), 로스차일드 록펠러가의 집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evil, 이블) 중의 악한들이죠. 그들은 전 인류를 5억명만 남기고 그들이 5억명을 노예 삼아서 지구를 경영해 나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지아주의 가이드스톤(guidestone)에 아주 대놓고 인구감축을 써놓고 아주 열심히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추는 것도 인구감소의 한 방법이죠.

(2) 백신접종,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끝까지 피해야 됩니다. 절대 맞아서 안됩니다. 백신에 들어있는 성분표를 보면 그래핀 악사이드(Graffine Oxide, 산화그래핀)가 99%가 들어있는데, 그건 완전히 독입니다.

또 한가지, 이 독으로 갑자기 죽지 않아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은 바로 반응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는 서서히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럼블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럼블은 된다고 하니 일단 얘기는 합니다.

(3) 백룡회, 인류를 구하기 위한 회의 참여

아시아 씨크릿 써싸이어티(Asian Secret Society, 아시아 비밀사회)가 카자리안 마피아(Kazarian Mafia)와는 달리 인류를 구하려고 하는 아시아의 사람들인데 화이트 드래곤 써싸이어티(White Dragon Society)는 백룡회라고 했죠.

아시아 중국쪽 백룡회, 인류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을에 회의를 소집할거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을이 지금 됐죠.

(4) 바이든 행정부를 끝내자, 지구향상 프로젝트 가동

리히텐슈타인에서 회의를 열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회의를 하려는 그 이유는 비밀리에 동과 서(East and West, 이스트 앤 웨스트)가 기본적인 어그리먼트(agreement, 동의)는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은 뭐냐.

그 협상에 참여한 내부자가 전하는 중요 내용 중의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를 이제 그만 끝내자. 정도의 협상을 타결했다고 합니다. 미국사람들을 끔찍한 악몽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한심한 바이든 행정부를 정권을 끝내자 정도는 동의가 됐고, 앞으로 수십조 달러의 프로젝트가 지구를 향상(improve, 임푸르브)시키기 위해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5) 바이든 행정부의 컷어프 데드라인, 9월 30일

아시아 씨크릿 써싸이어티가 말하길 바이든 행정부를 컷 어프(cut off, 잘라내버림) 하는 것을 9월 30일 지불만기일 데드라인(deadline, 마감시한) 전에 끝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피스칼 이어(fiscal year, 재정년도)가

9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새로운 회계연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원래 그렇거든요. 9월 30일날 지불해야 될 돈을 절대 지불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전에 바이든행정부를 찢라 버리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타이밍이 우리한테는 급작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같은 일반인들(ordinary people, 오디내리 피플)에게는 아무일도 안일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수면 밑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6) 수면아래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다...
물에서 오리가 수면위에서 평온하게 가는 것 같지만, 수면밑에서는 오리가 발로 엄청나게 헤엄을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무슨 일이 진행이 되긴 된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모르죠. 다 비밀리에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요. 더 기다리지 못하겠다, 아무 일도 안일어난다 이런 뉴스 그만해라 라고 하는 분들 제발 제 방송 듣지 마시고, 그런 내용 댓글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카발 잔당들의 도발에 대비한 캐나다 은행의 9월 30일 섯다운
제가 아까 말한 WDS(White Dragon Society, 백룡회), 그들이 앞으로 타결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건 어마어마한 인텔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캐나다에서 은행들이 9월 30일에 일단 섯다운(shutdown, 폐쇄)할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를 조종하는 핸들러(handler, 조종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불만기일을 필사적으로 막아 보려고, 자기들의 존재를 늦추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캐나다은행에서 돈을 훔쳐갈 일이 있을까 해서 섯다운 할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영화죠, 영화~

(녹취자: 자기들의 존재를 늦춘다는 표현은 아마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일을 벌인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들이 서로 협정 맺은 후에,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속임수나 실제 스파이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건데 앞으로 실제 소재가 되어서 많은 영화 각본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3. 호주, 가혹한 코비드 정책의 배경

호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뉴스를 팔로우(follow, 해당뉴스를 계속 보는 것)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인스트림미디어(Main Stream Media, 주류언론)는 보도하지 않고 있죠.

(1) 호주는 국민들에게 코비드 공포정책

호주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동영상등을 보면 호주가 영연방국가죠. 과거에도 중국과 많이 사업을 일으키고, 중국의 속국처럼 그 사이에 그래왔던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이 괜찮은 나라로 보일 정도로 사람들을 완전히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금 소셜 같은 얘기를 할건데 재미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다 팩트(fact, 사실)입니다.

(2) 호주의 미국 영국과 잠수함 거래, 중국을 격노케 했다

그래서 호주 잠수함 거래(Australian Submarine Deal, 오스트렐리언 서브머린 딜)라고 제목을 붙이겠는데, 중국을 굉장히 격노시킨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자면 그동안 이제 미국, 호주, 영국이 호주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호주의 거의 모든 정치인이 협박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해서 호주를 중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CCP(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공산당)가 로스차일드, 록펠러와 같이 꾸민 계획이었고, 호주를 중국에 넘기기로 한 이유가 뭐냐.

중국에 넘겨주면서 그 댓가로 중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계속해서 서포트하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주를 중국에 넘겨주고,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를 도와주고~ 이렇게 지들이 찼다 이말입니다.

(3) CCP의 대니얼 앤드류 주지사(빅토리아주)에 대한 협박, 코비드 공포정책으로 이어지다

그 명백한 증거를 하나 대겠는데, 호주에 빅토리아주가 있죠. 대니얼 앤드류가 빅토리아주의 주지사(premier, 프리미어/호주에서의 주의 주지사/ 미국에선 governor 거버너)입니다.

앤드류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하겠다고 과거에 싸인을 했고, 그가 얼마 전에 계단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거겠죠.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고 굉장히 큰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에서는 어디에서도 전무후무한, 찾아볼 수도 없는(민주국가라고 하는데) 가장 길고도 혹독한 코비드 정책을 주민들에게 시행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혼이 난거죠.

(4) 중국의 비즈니스 마피아와 결탁해왔던 빅토리아주의 주지사 대니얼 앤드류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주의 인텔리전스 정보국의 소스에 따르면 대니얼 앤드류는 중국의 비즈니스 마피아들과 결탁을 하고 중공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죠. 수 천만불의 돈을 받고 중국의 핸들러들로부터 빅토리아의 많은 프로젝트, 그린 라이팅 프로젝트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앤드류한테 어떤 일이 있었나면...

(들어보세요. 이거 영화네요 영화~)

(5) 책임자에 대한 협박과 폭행으로 코비드 공포정치를 추진하게 하는 CCP 앤드류의 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스의 딸(젊은 아이)과 호텔방에 있다가 잡혔는데 아마도 이건 셋업(setup, 설정)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뒷에 걸린거다 라고 얘기도 해요. 딸과 같이 있는 걸 보고 거의 죽을 정도로 얻어 맞았죠. 두개골에 금이 갈 정도로 상했으며 갈비뼈가 여러 대 금이 갔고 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로 100퍼센트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큰 호통을 들었고,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CCP(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공산당) 조종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앤드류나 가족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동안 빅토리아주의 건설산업이 왜 2주 동안 섯다운(shutdown, 폐쇄) 됐었나...

그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 호주가 왜 그렇게 심하게 백신을 못 맞춰서 야단이 났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현재 라이어트(riot, 폭동)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그룹이 일터로 돌아오는지 좀 주목하라고 얘기하네요.

그동안 앤드류는 빅토리아 사람들에게 백신을 아주 푸쉬하고 100퍼센트 맞추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모두 CCP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5) 호주의 약한 지진들은 현재 모두 DUMB파괴로 인한 것

또 다른 얘기를 좀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약한 지진(4-5진도)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말했는데요. DUMB(Deep Underground Military Base, 깊은 지하군사기지)에서 트럼프와 화이트햇이 전세계의 말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의 DUMB에서 많은 수의 아이들을 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아드레노크롬을 거기에서 제작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면, 호주에서 약한 지진들은 미국의 펜터곤에서 말하길 DUMB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한 지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인텔리전스에서도 “호주는 세계에서 여러 지하시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요시설을 가진 나라다.” 지하에는 아주 럭셔리한 호텔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카발들의 계획이 전 지구를 파괴하는 것인데요. 토들 디스트릭션(total destruction, 총체적인 파괴)을 지상에서 벌리고 자기들은 지하 호텔에서 살다가 지상에서 완전히 더스트(dust, 재, 먼지)가 다 가라앉고 괜찮아졌을 때 지상밖으로 나오겠다고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그 호주 지하에 호텔을 많이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지상에서 핵폭탄을 여러 개 날려서 전 지구를 아주 깨끗하게 다 파괴시키고 다시 나와서 새 건설을 하겠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얘기들으면 못 믿으시는 분들 없죠. 이런 자들이 카발입니다, 여러분. 저는 놀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지하시설이 아주 주요한 시설이다 라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록펠러의 아바타인 바이든이 중공에 나라를 넘기기로 한 나라가 호주가 있고, 일본이 또 있습니다. 일본은 얘기가 나오면 또 방송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아리조나 얘기를 한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4. 아리조나주 재검표는 양들을 깨우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1) 발표 뒤 트럼프 등장의 순진한 생각은 사절!^^*

아리조나주의 재검표가 24일 발표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리조나 발표를 3시간 반정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트럼프가 바로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진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의 하나예요.

(2) 아리조나주 자체에서 포렌식, 다른 주들도 연이어...

아리조나, 조지아.... 텍사스는 트럼프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도 재검표 해봐라. 포렌식을 해봐라. 이겼지만 그래도 많은 트럼프 표가 바이든에게 넘어간 게 확실하기 때문에. 밀리터리(Military, 군부)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민간인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피터 나바로 같은 분도 “확실히 이걸 부정선거다” 라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트럼프쪽에서 일한 사람들이 한 것이고, 지금 아리조나는 아리조나주 차원에서 포렌식을 한거죠. 그러나 물론 MSM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이 이겼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3) 주별 재검표과정은 범죄에 대한 확인과 연루된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과정
여러분, 발표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그들이 잘못된 일을 세상에 알리게 되고 거기에 연루된 범죄
자들(을 잡아내고 해야죠.) 이 매리코파 카운티(Maricopa County)의 수퍼바이저
(supervisor, 관리자)와 헤드(head, 수장)들이 이것(부정선거)을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조나주에서 공방전이 있습니다.

하려는 말은 뭐냐? 포렌식 발표를 하면서 연루된 범죄자들을 알리고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묻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잘 되고 있고, 제가 듣는
뉴스로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희망열차를 타고
가실 분은 가시고 아닌 분들은 이쯤에서 내릴 분들은 내리시기 바랍니다.

5. 서포트 시스템으로 멘탈을 강하게 하자

제가 서포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어떤 분이 카페 전화번호도 올려
놓고 하셨는데, 주위에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격려하고, 우리 이제
깨어난 사람들도 같이 격려하면서 지금 볼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쇼를 감상도
하지만 멘탈이 계속 강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뉴스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또 제가 방송을 하
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라나였습니다.

6. 유튜브의 그동안의 펍박과 럼블링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1) 라나방송2도 구독해주세요 - 럼블링크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

한가지 더... 라나방송2도 만들었는데 구독자도 없고 해서 검색을 해도 안나옵니다. 라나방송2에도 럼블 들어오는 주소링크를 달어드릴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구요. 럼블에 잘 들어오시게 하기 위한 목적 하나구요.

(2) 유튜브에서의 그간의 펍박, 방송 못한 사연

결론은 유튜브에서 저를 펍박을 했습니다. 방송 스트라이크를 저한테 줬습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일주일 줘서 방송을 못했어요. 끝나자마자 3일 뒤에 그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줬는데, 핑계가 뭐냐. 제가 3-4개월 전에 올린 수에즈 운하 그 방송이 허레스먼트 앤 불링(harrassment and bullying, 괴롭힘과 못살게 구는 것)이라고 자기네 정책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2주 동안 방송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풀릴때까지는 커뮤니티에 여러분에게 소식도 못 전했습니다. 방송 스트라이크 두 번째 징계가 끝나자마자 그 어떤 것으로라도 핑계를 잡아 라나방송을 폭파시키려고 할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목적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징계 끝나기 5시간 전에 마지막 방송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징계가 풀리자마자 안내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왜 라나방송이 한 개도 없냐? 그들이 그 방송을 트집 잡고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3) 라나방송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럼블로 연결하기 위한 다리

지금 라나방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럼블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라나방송에 가서서 파란색 럼블 주소링크를 누르시기만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라나방송이 폭파되지 않도록 제가 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데서 들을 수 없는 방송을 하는 편입니다. 한국말로 하는 우파 방송 중에는 저 같은 인텔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방송을 계속 듣기를 원하시면 라나방송tv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는 럼블로 걸어주는 링크 역할만 할 것이고, 라나방송tv2 도 가서서 구독하셔서 몇 만명이 생기면 럼블로 오는 브릿지(bridge, 다리)역할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이어월(firewall, 방화벽)을 이리저리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